

보도시점 2026. 6. 17.(수) 11:00
< 6.18.(목) 조간 >

배포 2026. 6. 17.(수)

한-몽 CEPA 협상 진전 등 전략적 경험 가속화 방안 논의

- 통상교섭본부장,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과 회담, 현지 기업 애로사항 청취

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)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.17(수) 몽골에서 자담빈 엔흐바야르(Jadambyn Enkhbayar)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과 한-몽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여, 자원 부국인 몽골과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한-몽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CEPA) 협상을 진전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였다.

몽골은 구리, 몰리브덴, 희토류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이 풍부*한 세계적인 자원 부국으로,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추진 중인 우리에게 중요성이 큰 신흥 무역 상대국이다. 지난 '21년 양국 관계를 '전략적 동반자'로 격상한 이래 한-몽 양국은 정치·경제·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으나, 양국 교역·투자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별도의 무역협정이 존재하지 않아, 지난 '23.11월부터 한-몽 CEPA 체결을 추진해 왔다.

* 구리매장량 세계 7위, 몰리브덴생산량 세계 9위, 희토류전세계 부존량 중 약16% 보유

여 본부장은 금번 회담에서 한-몽 간 경제협력 가속화와 공급망 연계를 제고하기 위해서 양국 통상 관계의 핵심인 한-몽 CEPA의 조기 타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, CEPA 협상의 핵심 쟁점인 상품 및 원산지 분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상 타결안을 마련하기 위해 몽측과 세부 입장을 조율하였다.

여 본부장은 이번 방몽 계기에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통관 절차 지원, 엄격한 CEPA 원산지 증명 요건 등 현장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했고, 통상장관회담에서 몽골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로 해소 지원을 당부하였다.

여 본부장은 “한-몽 CEPA는 양국 간 교역·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안정

적인 공급망 연대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 기반이 될 것” 이라고 강조하며, “상호 호혜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향후 협상을 가속화할 것” 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통상협정교섭관 통상협정협상총괄과	책임자	과 장	이민영 (044-203-5830)
		담당자	사무관	박태현 (044-203-5834)
	담당자	사무관	목연주 (044-203-5833)	
	통상협정교섭관 통상협정상품과	책임자	과 장	고장원 (044-203-5790)
담당자		사무관	유소영 (044-203-5794)	

